

중경삼림

국제화를 향해 조금씩 전진 중인 디지털위안화

중국이 본격적으로 디지털위안화를 통한 역외 결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세월간 위안화의 국제화에 매진하여 왔지만 올해 기준으로 전체 국제 결제 내 차지하는 비중은 2% 정도로 미진한 상황입니다. 2월 인민은행은 M-CBDC에 가입하고 디지털 화폐 발행 국가간의 결제 크로스보더 결제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디지털위안화의 발행이 지지부진하던 위안화 국제화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디지털위안화, 위안화 국제화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중국 인민은행은 디지털위안화 기능을 역외 결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 4/1(목), 중국 인민은행 연구국 국장 왕신(王信)은 언론과의 질의응답에서 디지털 위안화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국내 소매거래 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시장의 조건이 성숙한다면 수요에 맞추어 역외 결제 기능을 도입 가능하다고 발표. 최근 중국 정부가 디지털위안화 도입에 속도를 남에 따라 현재 다소 지지부진한 위안화 국제화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음

중국의 디지털위안화의 역외 결제 서비스 개발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최근의 미-중간의 분쟁이 심화가 그 도화선 역할을 하였다는 분석이 지배적. 작년 홍콩 보안법 도입 이후 미국이 중국 금융기관들의 국제 결제를 제재할 것이라던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중국 내에선 SWIFT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 이러한 우려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난달 22일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미국 달러와 서방 결제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 일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음

디지털위안화의 국제 결제 기능은 첫 개발 시기부터 예견된 바 있으나 중국 정부에 의해 언급된 것은 최근의 일. 작년 9월 허베이성 정부에 의해 발표된 《중국(송산신구)국제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건설 실시 방안》(이하 '방안')이 중국 정부가 디지털위안화를 이용한 역외 결제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문건. '방안은 국제 전자상거래 업무 활동 중 위안화를 사용한 결제를 권장하고, 디지털 위안화를 이용한 국제 결제 방법을 모색할 것을 권장

글로벌 CBDC 구축을 통한 역외 결제 기능 개발, SWIFT 합작법인 설립

인민은행은 이미 적극적으로 디지털 화폐 결제망 건설을 추진 중. 인민은행 산하 디지털화폐연구소는 지난 2월 '중앙은행 다자 디지털 통화 가교'(Multiple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Bridge-M-CBDC Bridge)에 가입했다 발표. [그림 1] M-CBDC 브릿지는 홍콩 통화당국인 홍콩금융관리국(HKMA)과 태국 중앙은행이 2019년 결성한 CBDC 역외 결제 프로젝트로 분산 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외환을 실시간으로 역외거래하는 결제 시스템을 개발 중. 향후 CBDC 발행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가입하여 규모가 확대된다면 SWIFT와 유사한 국제 결제 시스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중국 중경삼림 제를 분안에 팩트있게

연구원. 박기현, 02-3773-9006
Economist. 안영진, 02-3773-84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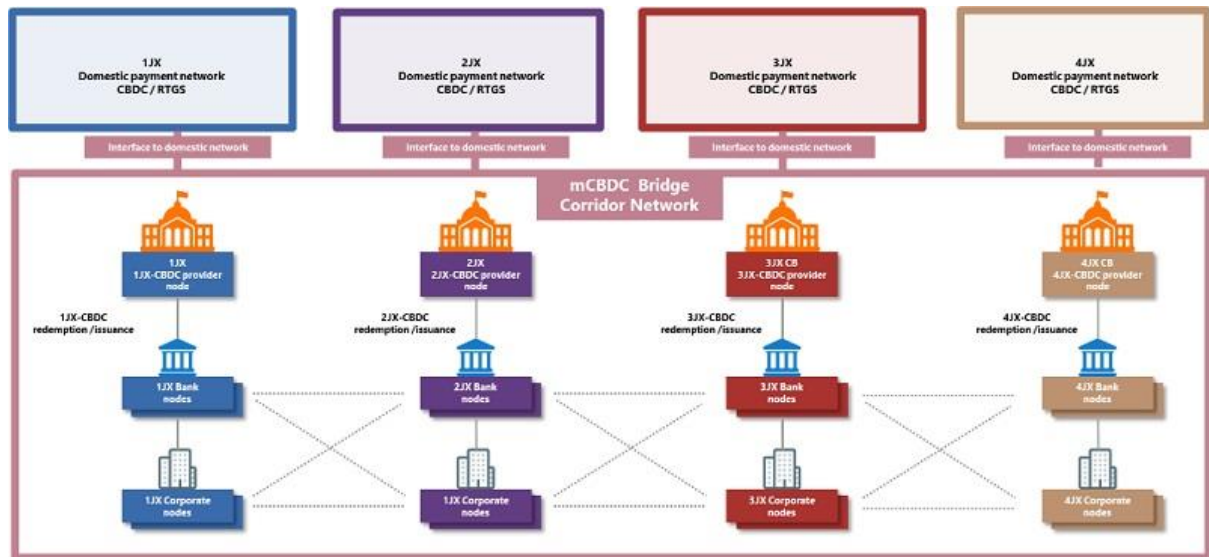
중국 금융당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통한 역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별개로 SWIFT 와 협력하여 금융게이트웨이공사(金融网关信息服务有限公司)를 설립(중국 지분 45%, SWIFT 지분 55%). 과거에는 개별 금융기관이 국제 결제를 위해 직접 SWIFT 와 연결해야했던 반면, 앞으로는 금융게이트웨이공사가 중국 내 통합 중개 기구 역할을 해줄 전망. 중국 정부는 합작 법인 설립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SWIFT 시스템이 가진 기존의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

디지털위안화의 약진, 달러화 패권과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에 대한 도전

중국은 2009 년 위안화 국제화의 공식 추진을 선언하고 국제 거래에 있어 위안화 사용을 권장한 바 있음. 하지만 올해 3 월 기준 국제결제시스템인 SWIFT 내에서 중국 위안화 결제 비중은 2.2%에 불과. [그림 3] 중국에게 있어서 글로벌 CBDC 결제 시스템 확장은 미국의 제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전략. 따라서 향후 디지털 화폐 발행 국가들과의 연계를 꾸준히 시도할 것으로 보임

또한 중국 국내 결제 시스템에 디지털위안화를 접목하는 노력 역시 꾸준히 이뤄질 전망. 중국 6 대 국영은행은 이미 디지털위안화 지갑을 개통 서비스를 개시. [그림 4] 또한 상하이에서는 몇몇 백화점과 자판기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위안화 결제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디지털위안화로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해짐. [그림 5] 내년 2 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디지털위안화의 전면적인 상용화가 이뤄질 예정. 현재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은 알리페이·위챗페이가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 결제 서비스 부문에서 경쟁한다는 점에서 알리바바, 텐센트 등 Big Tech 주는 디지털위안화 상용화로 인한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그림 1] BIS 가 예시로 제공한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 의 역외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M-CBDC Bridge 구조



자료: BIS, SK 증권

[그림 2] 중국은 최근 SWIFT 와 함께 합작법인을 설립, 중국 국내 금융기관들의 국제 결제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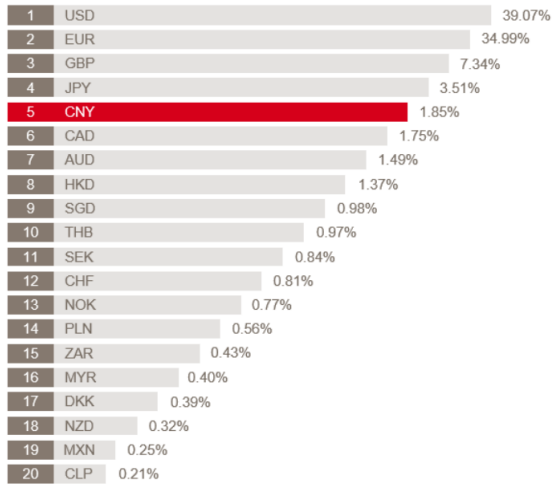


자료: 언론종합,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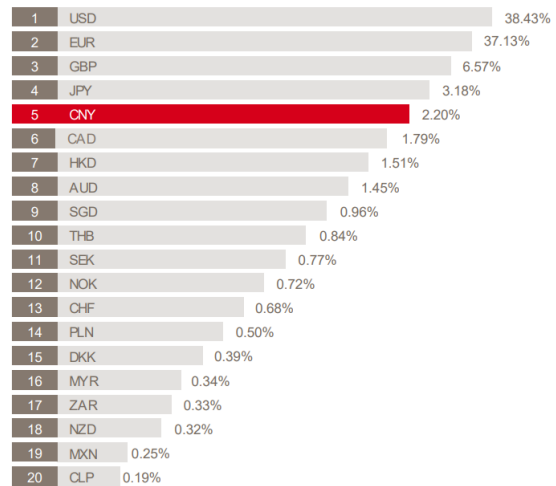
[중국 경제를 삼분안에 임팩트있게]

[그림 3] 2월 기준 국제결제시스템인 SWIFT 내에서 중국 위안화 결제 비중은 2.2%에 불과, 대부분의 결제는 달러 및 유로로 이뤄짐

February 2019



February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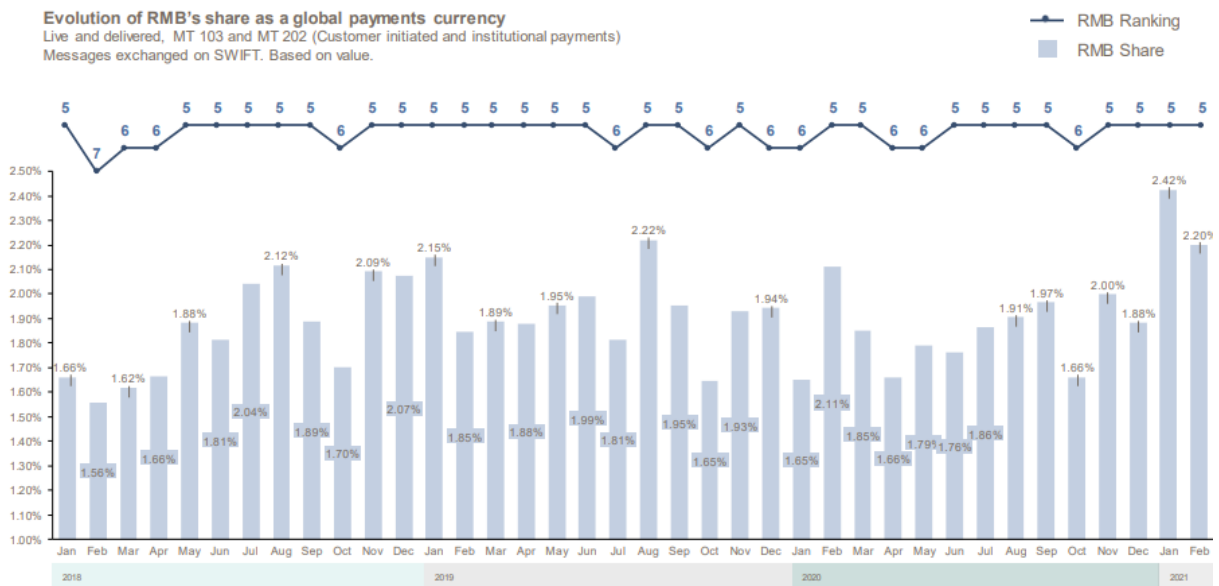


자료: SWIFT, SK 증권

[그림 4] 지난 몇 년간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안화의 국제 결제 통화로서의 순위는 5~6 위 수준에 머무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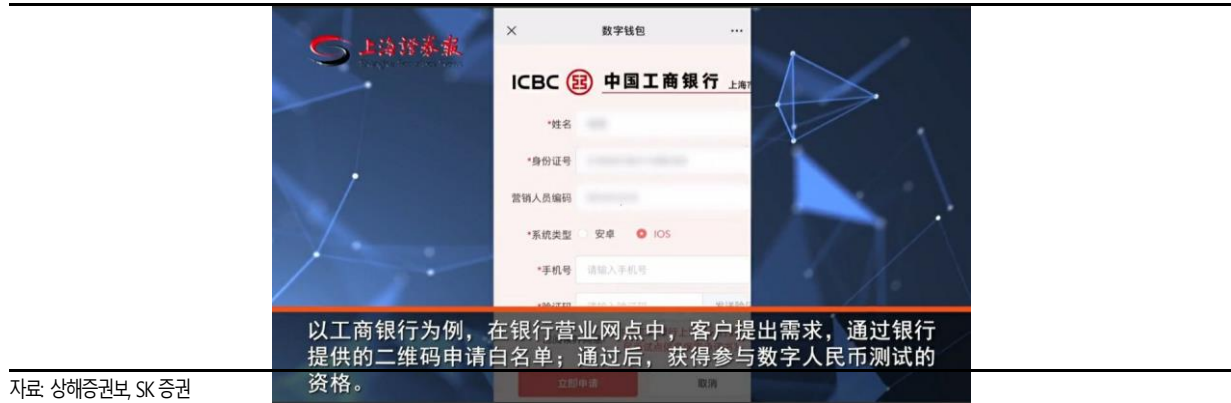
Evolution of RMB's share as a global payments currency

Live and delivered, MT 103 and MT 202 (Customer initiated and institutional payments)
Messages exchanged on SWIFT. Based on value.



자료: SWIFT, SK 증권

[그림 5] 중국 공상은행의 디지털 지갑 신청 화면, 온라인으로 신청 및 개설이 가능



자료: 상해증권보, SK 증권

[그림 6] 상하이시에 설치된 자판기에는 이미 디지털위안화 결제 기능이 포함됨, 위챗페이, 알리페이, 유니언페이 등과 나란히 위치



자료: 상해증권보, SK 증권

Compliance Notice

- 작성자(박기현, 안영진)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본 보고서의 발간시점에 해당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 단계(6 개월 기준) 15%이상→ 매수 / 15%~15%→ 중립 / -15%미만→ 매도